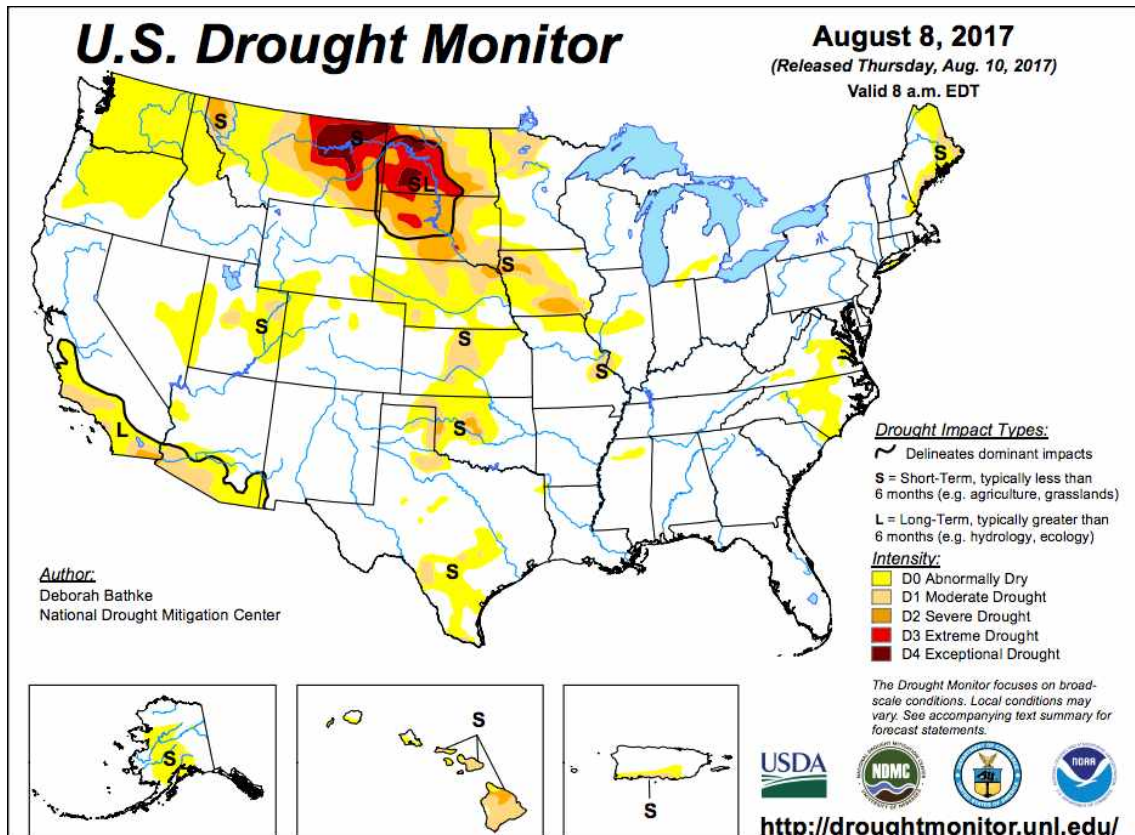


8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3)

□ 미국 기후 현황(8/6~8/12)

중부와 남부 평원에서 시작된 비는 대서양 연안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지난주 4-8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남동부 평원에서도 또다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물러가 중부와 동부의 지난 한 주간 기온은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낮았다. 플로리다 일대와 텍사스 남부 등에서는 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렸다. 중서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아이오와, 미주리 동부 등의 옥수수, 대두 재배지 일대에서는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서부 북부의 네브라스카, 다코타 등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보다 많은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몬태나 서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8월 상반기 동안 3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잦은 산불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대기질이 악화된 상태이다.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산간지역 및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에서는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8/7~8/13)

지난주에 이어 대평원 및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또다시 평년에 비해 기온이 4°F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다. 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미국 남부를 제외한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1.5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부 평원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델타 등에서는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 세계 기후 현황(8/6~8/12)

■ 유럽: 유럽 대륙의 중부와 북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고,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폴란드에서부터 발칸반도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3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저기압이 알프스 일대에 위치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남부 및 이탈리아 북부 등에 10~75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동부 일대에서도 비구름이 곳곳에 10~5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스페인 전역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4°C까지 낮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가뭄도 이어지고 있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5~41°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다.

■ 구소련(서부):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등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벨라루스 및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남부에서는 늦더위가 찾아왔지만 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더위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카서스 북부 일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7월의 무더위로 인해 이 지역의 옥수수 수확량은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다. 양쯔강 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 내린 비의 양이 평년보다 많은 상황이다. Hubei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 지난 45일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북동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이 지역의 옥수수, 대두 등의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남부 일대와 혼슈 북동부 등에서는 태풍 노루가 상륙하면서 50~10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하지만 북부의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한반도 동부 일대에서도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한반도 서부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비가 내렸는데, 비의 양은 20~50mm 내외였다. 보다 동부의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서부 등에서도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는데 강우량은 5~15mm 내외를 기록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여름작물의 파종작업 등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호주 전역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의 많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La Pampa, Cordoba 남부 등에서도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Entre Rio에서도 강우량 25~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남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면화의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북서부의 Cordoba 북부, Santiago del Estero, Chaco 서부, Formosa 등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7°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1%p 정도 앞서는 수준이다. 밀의 파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p 앞서고 있다.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88%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4%에 비해 4%p 앞서고 있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 지역의 밀 개화율은 8월 10일 기준 5%를 기록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8일 기준 filling 단계에 이른 밀 재배지 면적은 35%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67%를 기록했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는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Mato Grosso의 옥수수 수확률은 8월 11일 기준 98%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기준 면화의 수확률은 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p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1~5°C 정도 기온이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5°C까지 오르내렸다.